

올 한해 신서체 74종 발표 예상

올 한해 서체개발회사를 통해 대략 45벌 86종의 신서체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종수로 보면 서울시스템 8종을 비롯해 한양정보통신이 가장 많은 30여종의 서체를 발표할 예정이며, 99년 이후 신서체 발표를 미루어오던 세일포트마(전 소프트매직)가 4년 만에 신서체를 발표한 반면 매년 10여종의 신서체를 발표해 오던 윤디자인연구소는 올해 신서체를 발표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본문용 서체 출시 돋보여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아시아폰트이다. 지난해 15종의 서체를 발표했던 아시아폰트(대표 마성수, www.asiafont.co.kr)는 지난 3월 올해의 신서체로 본문용을 포함한 7벌 12종의 서체와 한문 6종을 발표했다.

기존 명조체의 이미지를 탈피한 보다 젊고 감각적인 본문용서체인 '한글나라'를 중심으로 여러 매체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혼, 하얀 민들레, 남북통일' 등 다양한 컨셉의 글꼴을 선보였다.

'한글나라A' 형은 완성형으로 구성된 본문용 서체이다.

'한글나라B' 형은 기존의 명조체류와 비

교하여 세리프의 굴림과 꺾임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되었고, 모음 'o' 꼴의 상단 돌기부분의 적용과 미 적용을 통하여 시각적인 피곤함을 절감시켰다. 특히 기본구조상 탈 네모형 서체로 분류되지만 본문용 서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완성형에 가까운 탈 네모형으로 개발되었다.

'한글세상'은 명조와 고딕의 구조가 혼합된 퓨전형 스타일의 글꼴로, 특히 세로 획은 역 사다리꼴의 형태로 제작된 개성이 돋보인다.

'포트폴리오'는 탈 네모형의 고딕스타일로 가로 세로 획의 간결미와 전체적으로 평체의 모듈로서 개발된 서체로서 단단하고 힘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본문용으로 사용 시에는 장체로 변형하여 활용하면 보다 자연스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아시아 폰트의 설명이다.

'결혼'체는 전체적으로 획의 두께에 차이를 두었고, 자모음과 글꼴의 공간감을 자유롭게 배분한 탈 네모형 구조로서 자연스런 질감의 효과를 표현했다.

'남북통일'체는 손으로 실제 쓴 글자를 기본으로 하여 전자출판에 이상적인 적용이 되도록 구조적 수정을 거쳐 개발된 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아시아폰트이다. 지난해 15종의 서체를 발표했던 아시아폰트는 올해의 신 서체로 본문용을 포함한 7벌 12종의 서체와 한문 6종을 발표했다.

체이다. 특히, 대다수 필기체류들이 여성적인데 반해, 남북통일은 강렬하고 힘있는 분위기의 남성적 표현에 역점을 두었다.

'하얀 민들레'는 명조형의 이미지를 응용하여 개발한 탈 네모형 서체로서, '하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형상을 시각 이미지화 한 작품'이라는 게 아시아폰트의 설명이다.

새로이 발표된 신서체와 관련 아시아폰트 관계자는 "폰트제작시 기본적 서체 제작 이론에 충실했으며 적정 행간 및 자간을 고려, 최적의 공간적 미학으로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아시아폰트는 기존 아시아폰트 정품사용자에게는 저렴한 업그레이드비용으로 신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소프트매직의 서체 부분을 인수한 (주)세일포트마(대표 이중화)도 오는 6월초를 즈음해 4년만에 신서체를 발표한다.

소프트매직 시절부터 최정호의 신명조를 가장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세일포트마는 본문용 서체를 전문 생산해 온 회사답게 이번 신서체 역시 본문용 서체 12벌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명조'와 '신신명조'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서체를 새롭게 다듬어서 발표될 이번 서체는 현재 기획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좋은 반응 얻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세일포트마 홍기익 부장은 "기존 오류라고 말하는 모든 부분을 수정했으며, 한글과 한문, 특수문자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장평 등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한 작품"이라고 자사가 발표할 서체를 평가했다.

신문용 서체 시장과 다국어 시장에서 탁월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폰트는 올 하반기에 총 8종의 신문용 서체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양정보통신도(대표 강경수) 4월에서 6월 사이에 30여종의 신서체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03
asiafont

asiasoft (91)여미아트 TEL: 02-741-1192 / FAX: 02-741-1198 / asiasoft.co.kr



하얀 민들레

홀씨가
블고기에 처럼 퍼져 나간다

- 한글나리사 디자이너를 위한 無限想像地帶
- 한글나리음 디자이너를 위한 無限想像地帶
- 하얀민들레 디자이너를 위한 무한상상지대
- 남북통일 디자이너를 위한 무한상상지대
- 명조 디자이너를 위한 무한상상지대
- 한글서상 디자이너를 위한 무한상상지대
- 포트올리우 디자이너를 위한 무한상상지대

산돌과 윤디자인의 엇갈린 행보

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메이저 서체회사임을 자임해 온 산돌글자은행(대표 석근호)과 윤디자인연구소(대표 윤영기)의 행보이다.

서체 업계에서는 메이저 회사를 자임하지만 두 회사의 지난해 영업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출력업체들이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하나로 더 이상 신서체를 구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에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 회사의 관심은 신서체가 아닌 '삼성폰트'였다.

삼성그룹 구조조정 본부에서 발주한 '삼성폰트'는 추후 삼성 전 계열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삼성과 거래를 원하는 모든 업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할 서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다. 서울폰트와 산돌글자은행, 윤디자인연구소 등 세 회사가 경합을 벌였던 '삼성폰트' 건은 지난 2월말 산돌글자은행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삼성폰트의 발주자 발표 이후 양 회사의 행보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돌글자은행의 경우 향후 '삼성폰트'를 발표해야 하는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초월에 본문용 서체가 주종을 이루는 8벌 24종의 신서체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윤디자인연구소는 아직 신서체 발표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디자인 연구소가 신서체를 발표하지 않기는 1995년 회사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용우 기자〉